

누정에 흐른 시간, 담양 가사문학 뿌리를 걷다

남도 체험로드
담양 Culture



소쇄원·식영정·면양정·송강정 따라
풍광과 가사문학의 숨결 느껴보고
한폭의 자연 그 자체인 대담미술관서
작품 감상·체험 프로그램 등 즐기고
마을 곳곳 다양한 갤러리 찾아볼까



송강 정철이 시를 짓고 사유하던 송강정. 가사문학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가사문학의 풍류 거처, 소쇄원 식영정 면양정 송강정
담양은 자연과 문학, 풍류가 어우러진 조선 누정 문화의 중심지다. 누정에 앉아 보이는 산수와 바람, 물빛은 지역 문인들의 창작 기반이 되었고 이를 통해 담양은 가사문학의 본거지로 성장했다.

특히 담양은 소쇄원, 식영정, 면양정, 송강정 등 주요 정자와 문인이 남긴 작품과 학문적 교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가사문학 형성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 담양의 가사문학의 숨결과 결을 따라가본다.

첫 방문지는 담양을 대표하는 별서정원 소쇄원이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울창한 대나무 숲길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길게 흔들리는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대나무가 만든 그림자로 계절의 찬기운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대나무 숲을 지나면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소쇄원이 나타난다. 물길을 막거나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흐르게 한 배치, 자연을 장식하는 대신 자연의 성질을 존중하며 최소한만 만진 구조가 인상적이다.

소쇄원은 조선 중기 학자 양산보가 스승 조광조의 죽음을 슬퍼하며 속세와 거리를 두기 위해 조성한 별서정원이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사유하고 수양하며 학문적 태도를 지키고자 했고, 이러한 정신은 후대 담양 문인들에게 하나의 문학적 바탕이 되었다.

소쇄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한국가사문학관은 담양 지역 가사문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정리한 전시 공간이다. 정철, 송순, 임제, 권호문 등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작품과 활동 기록이 소개돼 있었고, 당시 지리적·정치적 배경과 지역 문화권의 특징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문화관 내부에는 작품을 직접 필사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과 지역 누정의 구조·배치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 문학 세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화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식영정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올라가는 길에 자리하고 있다. 안내문에서 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임역령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정자라는 설명이 보인다.

정자에 도착하면 산세와 주변 수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자 내부에는 여려 흔판이 걸려 있어 당시 문인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작품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김성원과 문인들은 이곳에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키웠고, 이러한 사유의 태도는 담양 가사문학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면양정은 면양 송순이 고향으로 내려온 뒤 지은 정자로 기록돼 있었다. 정자에 도착하기까지 끝없이 이어진 길 돌계단을 오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면양정은 송순이 '면양정가'를 남기며 가사문학의 본격적 토양을 마련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연과 벗하며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를 노래했고 이 작품은 가사문학의 형식·주제·정서가 다듬어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면양정에서 시작된 문학적 흐름은 후대의 가사 작가들에게 '자연을 관조하며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 방식'을 전하는 기준점이 됐다.

송강정은 정철이 관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지은 정자다. '죽록정' 이란 이름의 초막이었다가 정철이 죽록정을 고쳐 지어 '송강정'이라 불렸다. 정유재란 때 불타 빙터로 남아 있던 것을 1770년 후손들이 지금의 팔작지붕 정자로 다시 건립했다. 정자 옆에는 1969년에 건립한 '사미인곡' 시비가 서 있다. 주변이 비교적 개방돼 있어 정자 안에서 앉아 바깥을 바라보면 시야가 탁 트인다.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분포해 있어 정자에 이르는 길도 안정된 느낌이다.

◇자연 닮아 담양스러운 예술, 대담미술관

대담미술관 마당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올드 앤 뉴'가 겹쳐진 풍경이다. 노출 콘크리트로 지은 미술관 건물 옆으로 오래된 기와집이 서 있고 마당에는 은행나무와 대숲, 닭과 고양이, 참새 조형물까지 뒤섞여 있다. 정희남 관장은 이 풍경을 "자연을 해치지 않고 살려주는 야외 전시장"이라고 부른다.

담양을 향교리 할머니 300여 명을 모아 문파에 들어갈 그림을 직접 그리게 하고 재료비와 식사를 미술관에서 책임졌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할머니들에게는 '향교리 아티스트'라는 명함도 만들어 주었다.

집벗으로 자식을 키웠다는 집은 '집벗 갤러리', 대나무 숟을 삶아 파는 집은 '죽순 갤러리', 꽃을 좋아하는 할머니의 집은 벽 모양 화분에 꽃을 심어 파는 '꽃씨 갤러리',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집은 '감꽃 갤러리'로 꾸미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대부분 70~90대 할머니들이다. 골목마다 다른 이름을 가진 갤러리가 생기면서 관광객들은 미술관만 보고 떠나지 않고 마을 골목을 따라 걸으며 각 집의 삶과 역사를 함께 만날 수 있다.

롯해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 1종 등록미술관'이다.

실내 전시실은 크지 않지만 미술관 구석구석에 숨겨둔 조형물과 설치작품이 야외 공간 전체를 전시실로 확장시켰다. 기와 지붕 위에 나란히 앉은 참새들, 계단 틈에 올라온 꽃, 나뭇가지 위에 매달린 새집까지 모두 작품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작품들은 대담미술관이 추구하는 전시 방식이다.

건축가들이 이곳을 '가장 한국적인 미술관'으로 뽑는 이유도 여기 있다. 노출 콘크리트의 현대적 건물과 오래된 한옥, 초기, 대숲과 밭이 한 풍경 안에 들어오면서도 과하게 뛰어 않고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대나무 담양의 '대(竹)·담(潭)'을 따온 이름이면서 크게 담고 대화한다는 뜻의 '대담(大談)', 소심하지 않고 과감하다는 뜻의 '대담(大膽)'을 함께 품은 이름이다. 자연 친화적 주제를 다루는 작가들을 초대하고 지역 작가와 청년 작가, 때로는 초등학생까지 전시 주인공으로 세운다.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과 생활, 작가와 주민의 얼굴을 담아내는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 관장의 운영 철학이다.

대담미술관의 가장 큰 실험이자 자부심은 '동네방네 미술관'이다. 정희남 관장이 미술관보다 먼저 특허를 낸 이 프로그램은 미술관 담장을 넘어 동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로 바꾸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담양 향교리 할머니 300여 명을 모아 문파에 들어갈 그림을 직접 그리게 하고 재료비와 식사를 미술관에서 책임졌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할머니들에게는 '향교리 아티스트'라는 명함도 만들어 주었다.

집벗으로 자식을 키웠다는 집은 '집벗 갤러리', 대나무 숟을 삶아 파는 집은 '죽순 갤러리', 꽃을 좋아하는 할머니의 집은 벽 모양 화분에 꽃을 심어 파는 '꽃씨 갤러리',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집은 '감꽃 갤러리'로 꾸미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대부분 70~90대 할머니들이다. 골목마다 다른 이름을 가진 갤러리가 생기면서 관광객들은 미술관만 보고 떠나지 않고 마을 골목을 따라 걸으며 각 집의 삶과 역사를 함께 만날 수 있다.

"개인 미술관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공공 사업"이라는 정 관장의 다짐처럼 대담미술관은 작가 초대전과 교육 프로그램, 동네방네 미술관, 무료 관람까지 지역 주민과 관광객, 작가와 아이들이 함께 숨 쉬는 문화 생태계를 꿈꾼다.

미술관 안쪽에는 조용한 카페도 있다. 대부분의 미술관이 유리창 앞에 카페를 내고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식과 달리 대담미술관은 카페를 뒤쪽으로 숨기고 전시 공간을 정면에 두었다. 카페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 하다. "여러분이 마시는 차 한 잔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젊은 작가들의 미래 디딤돌이 됩니다."

/이보람·한동훈 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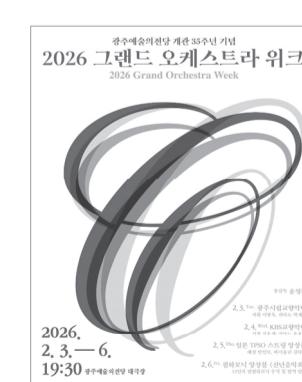
대담미술관의 외관. 자연을 품은 미술관이라는 콘셉트가 공간 전체에서 드러난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